

# 여향인의 시각으로 본, 17세기 후반 서울의 다층적 면모와 그 의미

- 최승태의 <한양행(漢陽行)>을 중심으로

강수진\*

## <차 례>

1. 서론
2. 17세기 서울과 <한양행> 창작
3. 여향인의 시각으로 본 17세기 후반 서울의 면모
4. 결론

##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최승태의 <한양행(漢陽行)>을 분석하여 여향 지식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17세기 후반 서울의 모습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전란과 대기근 이후에 도시화의 기반을 다지는 당대 서울의 면모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고에서 최승태의 <한양행>에 주목한 이유는 2가지로, 첫째는 17세기의 서울을 대상으로 창작된 작품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조선 초기부터 후기까지의 서울 이미지 또는 그 공간에 대한 인식의 변천 과정을 파악하려면 17세기 서울을 대상으로 한 작품을 분석하여 그 특성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17세기는 전란과 대기근을 겪은 시기로, 서울의 경우 17세기는 전란으로 무너진 도성 공간과 추락한 국도의 위상을 회복하는 시기이자, 대기근으로 다시 맞이한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던 시기였다. 최승태의 <한양행>은 이러한 기반에서 창작된 것이다.

이 작품은 총 7수로, 내용상 1~3수, 4~7수로 나눌 수 있다. 1~3수에서는 도성 주변의 산천과 궁궐을 통해 당시 서울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도성을 상징하는 공간을 통해 태평성대를 누리는 공간으로 서울을 표현하였다. 4~7수는 당시 서울을 주

\* 경상국립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학술연구교수

도하던 계층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는데, 이들은 각각 왕족, 역관, 고관, 하급 무관이다. 4수에서는 왕족의 화려한 저택의 모습을 통해 당시 서울의 부화한 풍조를 나타냈다. 역관의 경우 사행을 통해 부를 축적하며 서울의 신흥 계층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고관과 하급 무관의 경우, 고관은 숙직 중에 유희를 즐기는 모습을, 하급 무관은 화려하게 치장하고 위세를 과시하는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이처럼 최승태는 <한양행>에서 다양한 계층의 인물 모습을 통해 당대 서울을 다채롭게 표현하였는데, 이는 그가 여항인의 신분으로 사적 차원에서 작품을 창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즉, 그의 시각으로 서울을 이상적인 수도의 모습으로 묘사하면 서도 당시의 세태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한양행>을 창작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전란과 대기근 이후에 도시화·상업화가 시작되는 서울의 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주제어** 17세기, 서울, 최승태, <한양행>, 여항인

## 1. 서론

본고에서는 17세기 후반의 서울을 대상으로 창작된 최승태(?~1684)의 <한양행(漢陽行)>을 분석하여, 여항인의 시각으로 당대의 서울을 어떠한 이미지로 표현하고자 하였는지 밝히고자 한다. 최승태는 17세기 중후반에 활동한 경아전 신분의 여항 시인으로, 여항문학의 선구자적 인물인 최기남(1586~)의 아들이다. 그는 아버지를 이어 박준원, 홍세태 등과 낙사(洛社)를 이끌었으며, 문집으로 『설초유고(雪蕉遺稿)』가 있다.<sup>1)</sup> <한양행>은 그의 몰년 및 내용을 고려했을 때 1670년 이후에 창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1) 최승태의 생애와 관련된 부분은 강석중의 「설초(雪蕉) 최승태(崔承太)의 시세계」(『한국한시작가연구』 11, 한국한시학회, 2007.)와 이국진의 「설초(雪蕉) 최승태(崔承太)의 공주체류기 한시(漢詩) 고찰」(『한문고전연구』 39권, 한국한문고전학회, 2019.), 한국고전종합DB(db.itkc.or.kr)에 실린 『雪蕉遺稿』의 해제(김재훈 저)를 참고하였음.

창작 시기상 이 시에 전란과 대기근 이후 서울의 면모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본고에서 최승태의 <한양행>을 통해 17세기 후반 서울의 면모를 파악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조선 시대의 서울 공간을 대상으로 창작된 작품 연구는, 서울의 전체 공간을 대상으로 창작된 작품 연구와 서울의 특정 장소를 대상으로 창작된 작품 연구로 나뉜다. 이 중에서 <한양행>과 같이 서울 전체 공간을 바탕으로 창작된 작품의 경우, 창작 당시의 서울을 어떠한 이미지로 표현하고자 하였는지, 또는 당시에 서울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파악하는 방향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관한 연구는 주로 조선 초기와 후기의 서울을 대상으로 창작된 작품 분석에 집중되어 있으며, 각각 조선 초기에 서울이 수도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던 과정과 조선 후기 서울의 도시문화적 특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에 비해 조선 초기와 후기를 잇는 중기, 특히 전란 이후의 17세기 서울을 대상으로 창작된 작품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특성을 밝히는 연구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처럼 17세기 서울을 대상으로 창작된 작품 연구가 주목받지 못했던 이유는 전란 이후에 서울 전체를 대상으로 창작된 작품은 대부분 월과(月課)로 창작된 팔경시(八景詩)이기 때문이다. 공적 차원에서 국도의 위상을 높이는 목적으로 팔경시를 창작하였기 때문에, 그 주제 의식이나 표현적인 면에서 주목받지 못했다. 더불어 17세기라는 시대적 특성 때문에 당대 서울을 대상으로 창작된 작품이 주목받지 못했는데, 17세기는 전란과 기근으로 사회·경제적 위기를 겪었던 시기이며, 또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이 때문에 새로운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던 조선 초기와 도시화·상업화가 이루어진 조선 후기의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공간적인 특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조선 초부터 후기까지의 서울 이미지 또는 그 공간에 대한 인식

의 변천 과정을 파악하려면 17세기 서울을 대상으로 창작된 작품을 분석하여 그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즉, 전란과 대기근을 거치면서 서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도시화·상업화가 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도기에 해당하는 17세기 후반의 서울을 대상으로 창작된 작품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최승태의 <한양행>을 분석하여 여항 지식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17세기 후반 서울의 면모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전란과 대기근 이후 서울의 모습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 17세기 서울의 특징 및 <한양행>의 창작 배경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최승태의 <한양행>을 분석할 것이다.

## 2. 17세기 서울과 <한양행> 창작

### 1) 전란과 대기근 이후의 서울

조선 초기 한양으로 천도한 이래 서울은 국도로서 이상적인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정도전이 도성을 설계하면서 창작한 <신도팔경의 시를 올리다[進新都八景詩]>(『三峯集』 권1)에서 비롯되었다. 정도전은 새로운 수도의 모습을 8개의 표제(畿甸山河, 都城宮苑, 列署星拱, 諸坊碁布, 東門教場, 西江漕泊, 南渡行人, 北郊牧馬)로 나타내고, 이를 통해 창작 당시의 서울을 도읍지로 적합한 공간으로 묘사하였다.

정도전이 조선 초에 만든 서울의 이미지는 전란을 겪으면서 변화하였다. 임진왜란과 이괄의 난, 병자호란 때 도성이 점령당하였기 때문에, 서울은 더 이상 외적을 막아내기에 용이한 천연의 요새로 인식되지 않았다.<sup>2)</sup> 이는

2) 정해은은 조선 초에는 서울 도성이 천연의 요새로 인식되었으나, 전란이나 내란으로 도성이 점령당한 이후의 사람들은 서울 도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정해은, 「조선 초기 도성의 위상과 도성방어론」, 『서울학연구』 제49호,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2012, 112쪽.)

곧 서울이 수도로서 적합한 공간으로 인식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 때 문에 17세기에는 전란으로 파괴된 도성 공간을 복구하고 더불어 실추된 서울의 국도 이미지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이는 시 창작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이식의 <외숙의 한도 육운에 차운하다 당시에 천도의 의론이 끝나지 않았다[次舅氏漢都六韻 時遷都之議未息]>(『澤堂集』 권1)를 들 수 있다. 시의 제목을 통해, 천도의 논의가 제기될 때 이식의 외숙인 윤백순(尹百順)이 먼저 <한도 육운(漢都六韻)>을 창작하였고 이에 차운하여 이식이 시를 지었음을 파악할 수 있는데, 현재 윤백순의 시는 남아있지 않다. 이 시는 광해군 때 천도설이 제기되자 국도로서 서울의 위상을 회복하려는 목적에서 창작된 것이며, 이식의 시는 서울의 상징성을 강조하면서 재건된 창덕궁에서 정사가 펼쳐지는 모습을 묘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sup>3)</sup>

공적 차원에서도 문학 작품 창작을 통해 국도로서 서울의 위상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는데, 이에 해당하는 작품은 월과(月課)로 창작된 한도 팔경시(漢都八景詩)류이다. 그 대표적 작품으로 17세기 초반에 창작된 이식의 <한도팔경(漢都八景)>과 이민성의 <한도팔영(漢都八詠)>을 들 수 있다.<sup>4)</sup> 이식과 이민성의 작품이 창작된 1710년대는 궁궐과 전각을 다시

3) 「次舅氏漢都六韻 時遷都之議未息」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 년토록 이어 갈 제왕의 터전, 산천 신령 웅위하는 웅장한 도읍. 진산(鎭山)을 뒤로 하여 궁궐이 펼쳐지고, 해 그림자 정남향 정전(正殿)이 자리하였도다. 백성이 박처럼 의지하는 땅의 형세요, 상제가 진(秦)에게 내려 준 천문(天文)이로세. 새 궁궐에 옛날 모습 더욱 빛나고, 만백성 인정(仁政)을 바라는 터에, 학사들 자문에 계속 자주 올리고, 운대에선 갱신하자 의논을 바치누나. 다섯 왕릉 곱고 맑은 서기(瑞氣)가 감도나니, 돌아보면 의연히 태평스러운 봄 아닌가.[回首太平春聖曆基千祀, 雄都擁百神. 表山開魏闕, 圭日正楓宸. 地勢民依毫, 星文帝賜秦. 新宮光舊貫, 率土望深仁. 金馬籌頻問, 雲臺議更新. 五陵佳氣在, 回首太平春.]” 한국고전종합DB(db.itkc.or.kr)의 번역을 인용하였음.

4) 이식의 <한도팔경>은 『택당집(澤堂集)』 권1에 수록되어 있는데, 『택당집』에 수록된 작품이 저작 연대순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그 창작 연도를 추정해

짓고 민가를 복원하는 등 폐허가 된 서울을 복구하는 때였다. 이들 작품은 조선 초에 정도전이 창작한 팔경시(<進新都八景詩>)의 표제어와 주제 의식을 활용하여 창작되었다. 정도전의 팔경시가 월과 창작에 활용된 이유는, 그 표제와 내용을 통해 이상적인 국도의 모습을 표현하였기 때문이다.

17세기 전반이 전란으로 무너진 도성 공간을 재건하고 국도로서 서울의 위상을 회복하였던 시기라면, 17세기 후반은 대기근의 위기를 극복하였던 시기이다. 17세기 후반의 대기근으로 현종 대의 경신 대기근과 숙종 대의 을병 대기근(1695~1699)을 들 수 있다.<sup>5)</sup> 경신 대기근은 현종 경술년

볼 수 있다. <한도팔경>보다 앞서 수록된 <遊蕩春臺>에 달린 ‘癸卯(1613년)’라는 주와 <漢都八景> 뒤에 수록된 <謝愼仲舉 海翊 寄曆書>에 달린 ‘乙卯(1615년)’라는 주를 통해, 그 창작 시기를 1613~1615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이의신이 천도설을 제기하여 광해군이 천도를 고려하였다가 무산된 때이다. 이민성의 <한도팔경>은 이식의 <한도팔경>과 동일한 운(韻)으로 창작되었다. 또한 현존하는 작품으로 추정해보면, 17세기 이후부터 정도전의 <進新都八景詩>를 바탕으로 하여 서울에 대한 팔경시를 창작하는 것이 유행으로 제시되었으며, 이는 1720년대까지 이어졌다. 이에 해당하는 작품의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의 표에서 제시한 작품 외에 숙종이 창작한 <한도팔경(漢都八景)>도 있다.

| 작품명                             | 표제       |          |          |          |          |          |          |          |
|---------------------------------|----------|----------|----------|----------|----------|----------|----------|----------|
| 漢都八詠 月課<br>(이민성, 『敬亭集』 권2)      | 畿甸<br>山河 | 都城<br>宮苑 | 鍾街<br>觀燈 | 濟川<br>翫月 | 西江<br>漕泊 | 教場<br>試藝 | 箭郊<br>牧馬 | 盤松<br>送客 |
| 漢都八景 月課<br>(이식, 『澤堂集』 권1)       | 畿甸<br>山河 | 都城<br>宮苑 | 鍾街<br>觀燈 | 箭郊<br>牧馬 | 西江<br>漕泊 | 東門<br>教場 | 濟川<br>翫月 | 盤松<br>送客 |
| 漢都八景 并下十一律月課<br>(김재현, 『蘆溪集』 권2) | 畿甸<br>山河 | 都城<br>宮苑 | 鍾街<br>觀燈 | 濟川<br>翫月 | 東門<br>教場 | 西江<br>漕泊 | 箭郊<br>牧馬 | 盤松<br>送客 |
| 漢都八景詩<br>(강석, 『三溟詩話』)           | 畿甸<br>山河 | 都城<br>宮苑 | 鍾街<br>觀燈 | 箭郊<br>牧馬 | 西江<br>漕泊 | 東門<br>教場 | 濟川<br>翫月 | 盤松<br>送客 |
| 京都八景 月課代作<br>(홍세태, 『柳下集』 권8)    | 畿甸<br>山河 | 都城<br>宮苑 | 列署<br>星拱 | 諸坊<br>基布 | 東門<br>教場 | 西江<br>漕泊 | 南渡<br>行人 | 北郊<br>牧馬 |
| 京都八景 月課<br>(이덕수, 『西堂私載』 권2)     | 畿甸<br>山河 | 都城<br>宮苑 | 列署<br>星拱 | 諸坊<br>基布 | 東門<br>教場 | 西江<br>漕泊 | 南渡<br>行人 | 北郊<br>牧馬 |
| 京都八景<br>(오광운, 『藥山漫稿』 권2)        | 畿甸<br>山河 | 都城<br>宮苑 | 列署<br>星拱 | 諸坊<br>基布 | 東門<br>教場 | 西江<br>漕泊 | 南渡<br>行人 | 北郊<br>牧馬 |

- 5)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할 최승태의 <한양행>은 그의 물년과 시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1670년 이후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경신 대기근을

(1670)과 신해년(1671)에 걸쳐 일어났는데, 그 발생 원인으로는 이상 저운을 비롯하여 봄 가뭄과 여름철의 반복적인 폭우와 우박 등을 들 수 있다.<sup>6)</sup> 전란 이후에 인구가 전체적으로 감소하여 농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시기에 기후적인 요인으로 농작물이 수확되지 않아서 대기근이 일어난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와 더불어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대기근이 일어나 그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보았다. 경신 대기근으로 인구가 다수 감소하였는데, 1669년과 1672년 사이에 약 47만에 가까운 숫자의 인구가 감소하였다.

이 시기에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증가했는데, 이는 대기근으로 굶주린 백성들이 구휼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이동했기 때문이다. 기근이 들면 백성들은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여 구휼을 받았는데, 경신 대기근은 전국적으로 기근이 든 상태여서 구휼을 받고자 서울까지 이동한 백성들이 많았으며, 이들이 본래 거주지로 돌아가지 않고 서울에 남아 있었다. 유민들이 서울에 남아 있었던 이유는 다른 지역에 비해 서울에서는 구휼을 받을 가능성이 컸으며, 본래 거주지로 돌아가면 세금 및 요역을 바쳐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로 몰려든 유민들이 계속 서울에 머물게 되어, 전체적으로는 기근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이었으나 서울의 경우에는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sup>7)</sup>

중심으로 17세기 후반 서울의 상황을 정리하고자 한다.

- 6) 기존 연구에서는 경신 대기근의 주요 원인으로 소빙기를 들고 있다. 당시 세계적으로 소빙기에 접어들어 기온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상 저운 현상이 지속되었고, 이 때문에 흉년이 지속되어 대기근으로 이어진 것이다. 본고에서 경신 대기근과 관련된 내용은 김덕진의 『대기근, 조선을 뒤덮다 - 우리가 몰랐던 17세기의 또 다른 역사』(푸른역사, 2009.)와 김미성의 「조선 현종~숙종 연간 기후 재난의 여파와 유민(流民) 대책의 변화」(『역사와 현실』 118, 한국역사연구회, 2020.)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 7) 이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였다는 의미이다. 당시 도성에서도 기근으로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많아서 시신을 매장하는 장소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숙종의 시 <寧陵行幸之日, 東郊歷路, 見辛亥餓死人衆塚, 有感>에도 나타나

17세기의 대기근 이전에는 기근으로 유민이 발생하면 인근 지역에서 구출한 다음에 원래의 주거지로 돌려보내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17세기 후반에 경신·을병 대기근으로 유민의 이동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유민들의 대부분은 원래의 주거지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였다. 이 때문에 경신 대기근 이후로 유민들의 본토 쇄환 정책이 완화되었으며, 유민들이 머무르는 지역에서 그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sup>8)</sup> 고동환은 이러한 인구 이동과 서울의 도시화를 연결 지어 논의했는데, 구휼을 받기 위해 지방의 사람들이 서울로 이주하면서 서울의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그 영향으로 도성 공간이 확대되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도로망이 확장되어 서울이 대도시로 성장하였다는 것이다.<sup>9)</sup> 이를 통해 17세기 후반의 대기근으로 인구가 다수 감소하여 국가적으로는 위기 상황이었으나, 이는 한편으로 인구의 이동으로 이어져 서울이 도시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 2) 〈한양행〉 창작 시기와 배경

최승태의 <한양행>은 총 7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창작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의 문집인 『설초유고(雪蕉遺稿)』 해제<sup>10)</sup>에 따르면 1682년에 <이자춘에 대한 만사[李子春挽]>를 지었다고 하며, <한양행>은 칠언절구의 시들 중 마지막으로 실려 있다. 또한 <한양행>의 4수에서는 인평대군(1623~1658)과 숙휘공주(1642~1696)의 집을 통해 당시 도성의 화려한 면모를 나타냈는데, 이러한 점들을 통해 창작 시기를 추

있다.

8) 김미성(2020), 앞의 논문, 111~120쪽.

9) 서울의 상업화와 관련된 내용은 고동환, 『조선후기 서울 상업발달사 연구』, 지식산업사, 1998. 참조.

10) 한국고전종합DB(db.itkc.or.kr)에 실린 『雪蕉遺稿』의 해제(김재훈 저)를 참고하였음.

정해볼 수 있다.

『현종실록』 현종 5년(1664) 10월 15일 기사를 보면, 홍명하가 여러 공주의 집이 사치스럽고 크다고 언급한 내용이 나오고, 이 외에도 『현종실록』에는 당시 대신들이 공주들의 집을 옛 궁궐터에 지은 점이나 그 규모가 크다는 점을 비판하는 내용이 여러 차례 나온다.<sup>11)</sup> 그중에서도 효종의 딸인 숙휘공주와 숙경공주의 경우, 대신들이 그 저택 공사에 다수의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 점을 몇 차례 비판하였다. 『현종실록』 11년(1670) 8월 19일과 8월 21일 기사에, 사간 이익상 등이 대기근의 시기에 숙휘공주와 숙경공주의 집 공사에 다수의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 합당하지 않으므로 그 일을 중지할 것을 청하는 내용이 나온다. 8월 19일 기사에는 숙경공주의 저택을 짓기 위해 주변 인가 30호를 철거한 일을 비판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러한 내용을 통해 당시에 여러 공주 중에서도 숙휘공주와 숙경공주의 저택이 규모가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숙경공주는 1671년에 사망하여 새로 조성한 저택에 들어가서 살지 못했으며, <한양행> 4수에서 당시 서울의 화려한 저택으로 숙휘공주의 집을 들었다. 이를 고려하면 <한양행>은 대략 1671년 이후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된다.<sup>12)</sup>

<한양행>은 당시(唐詩)를 모의하여 지은 작품으로, 홍세태가 지은 <설

11) 이에 대한 예를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현종실록』 현종 1년(1660) 4월 2일 기사에는 송시열이 공주의 저택이 높고 전장(田莊)이 많은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며, 같은 해 5월 24일 기사에서는 현종이 도방군 5백 명을 조발하여 숙휘공주의 집에서 부역할 것을 명한 일에 대해 좌부승지 윤집이 비판한 내용이 나온다. 현종 5년(1664) 10월 15일 기사에서는 영종추 이경석이 홍평위(숙경공주의 남편)의 집으로 돌을 대규모로 운반한 일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 나온다. 또한 현종 10년(1669) 8월 18일, 8월 19일, 9월 17일 등의 기사에서는 윤집 등이 공주 저택이 정해진 제도를 넘어 사치스럽게 지어진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온다.

12) 인평대군의 집은 그가 사망한 이후에도 서울의 명소로 꼽혔는데, 19세기에 편찬된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의 명승 항목에 인평대군의 집이 나와 있다. 인평대군보다 후대의 인물인 숙휘공주의 집은 장의동(현재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있었는데, 이후 이 집을 숙종이 매입하여 연잉군(영조)에게 주었다.

초시집서(雪蕉詩集序)>에서는 최승태의 시풍에 대해 “초반에는 이백을 스승으로 삼고, 만년에는 명대(明代) 후칠자(後七子)를 좋아하였으며, 가행(歌行)과 장편(長篇)이 격조가 있고 뛰어나다.[初師太白, 晩好雪樓七子, 歌行長篇, 才格翮然.]”라고 평가한 내용이 나온다. 이를 통해 그가 16~17세기 문단의 영향을 받아 당시(唐詩)를 학습하고 창작했음을 알 수 있는데, 그의 문집에는 <새하곡(塞下曲)>, <소년행(少年行)>, <표상행(漂商行)> 등 당시를 모의하여 지은 작품이 다수 실려 있다. <한양행>도 그중 하나로, 당대(唐代)의 악부시를 모의하여 17세기 후반의 서울을 화려하게 표현하였다. 이러한 점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는 <한양행>을 궁궐, 공경귀족, 왕족 등에만 초점을 맞춰 서울을 화려한 곳으로 묘사하였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sup>13)</sup> <한양행>이 대략 1670년경에 창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唐詩)를 모의하였기 때문에 전란과 기근 이후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수도를 화려한 모습으로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양행>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 주변 산천 및 궁궐을 비롯하여 당대 서울을 대표하는 인물군의 모습이 담겨 있다. 즉, 당시를 모의하였으나 당대 서울의 특징을 반영하여 창작한 것이다.

최승태가 <한양행>을 창작하는 데 영향을 미쳤던 또 다른 요인으로 17세기에 한도팔경시(漢都八景詩)류가 윤행으로 창작된 것을 들 수 있다. 앞서 서술했듯이 17세기 이후에 궁적 차원에서 서울의 국도 이미지를 회복하고자 서울을 대상으로 팔경시를 짓는 것이 윤행으로 제시되었다. 이 팔경시는 정도전의 <신도팔경의 시를 올리다[進新都八景詩]>(『三峯集』 권1)의 표제를 바탕으로 창작되었다.<sup>14)</sup> 정도전이 만든 팔경시의 표제는 서울의

13) 강석중(2007), 앞의 논문, 206~207쪽.

14) 17세기에 윤행으로 창작된 서울 대상 팔경시는 정도전의 <進新都八景詩>의 표제를 바탕으로 하되 서거정의 <한도십영(漢都十詠)> 표제를 사용하였다. 표제 중 5개는 정도전의 <進新都八景詩>에서 畿甸山河, 都城宮苑, 東門教場, 西江漕泊, 北郊牧馬路, 3개는 서거정의 <漢都十詠>에서 鍾街觀燈, 濟川翫月, 盤松送客을 가져

공간을 전체(畿甸山河), 도성 안(都城宮苑, 列署星拱, 諸坊碁布), 도성 밖(東門教場, 西江漕泊, 南渡行人, 北郊牧馬)으로 나누고, 각 공간의 역할에 맞춰 이상적인 수도로 서울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다. 한도팔경시류의 작품들은 정도전의 팔경시를 기반으로 창작되었기 때문에, 정도전이 조선 초에 만든 서울의 이미지와 이를 통해 표현한 주제 의식을 계승하거나 일부 변형하는 방식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월과는 대작(代作)으로 창작되기도 하였는데, 최승태와 함께 낙사(洛社)에서 활동한 홍세태 또한 <경도팔경 월과를 대작한 것이라[京都八景 月課代作]>([『柳下集』 권8]>을 지었다. 홍세태의 작품은 1720년대 초에 창작되었으므로<sup>15)</sup> 최승태가 <한양행>을 창작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17세기 초반부터 18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서울을 대상으로 한 팔경시가 공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창작되었으며, 때로는 중인이 대작을 하기도 하였던 상황을 고려할 때, 한도팔경시류의 창작에 영향을 받아 최승태가 <한양행>을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즉, 17세기에 공적 차원에서 서울 전체 공간을 대상으로 팔경시가 창작되었으며, 그 영향으로 최승태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서울을 소재로 <한양행>을 창작한 것이다.

그러나 최승태가 <한양행>에서 서울을 표현한 방식은 한도팔경시류 작품과는 다르다. 월과로 창작된 한도팔경시류 작품들은 정도전의 팔경시를 전범으로 하였기 때문에 정도전이 만든 이미지 및 그가 표현한 주제 의식

---

온 것이다.

15) 홍세태의 <경도팔경>은 제목에서 서울을 ‘漢都’가 아닌 ‘京都’로 지칭하고 있으며, 17세기에 창작된 한도팔경시류의 작품은 정도전이 만든 표제를 기반으로 하되 서거정의 <漢都十詠>의 표제를 일부 사용하는 방식으로 창작되었는데, 홍세태의 팔경시는 정도전이 만든 표제를 모두 사용하여 창작되었다. 또한 1720년대에 창작된 오광운, 이덕수의 <京都八景>과 동일한 운(韻)으로 창작되었다. 이러한 면으로 볼 때 홍세태의 작품 또한 1720년대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에 기반하여 내용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창작되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한도팔경시류 작품에서의 서울은 8개의 공간과 그 공간의 역할에 따른 이미지를 기반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서울을 이상적인 국토 공간으로 나타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비해 최승태의 <한양행>은 공간을 기반으로 창작된 것이 아니라, 그의 시각에서 바라본 당대 서울의 모습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창작되었다. 다만 서울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성으로서 상징성을 보여주는 공간을 소재로 하여 앞의 3수 내용을 구성하고, 뒤의 4수에서는 당대 서울을 대표하는 다양한 계층의 인물군을 소재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최승태가 <한양행>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던 17세기 후반 서울의 면모를 분석하고자 한다.

### 3. 여향인의 시각으로 본 17세기 후반 서울의 면모

#### 1) 서울을 상징하는 공간을 통해 태평성대 표현

<한양행>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3수에서는 서울의 주변 산천 및 궁궐을 중심으로 하여 서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1수는 한강과 남산, 2수는 궁궐, 3수는 도성 주변의 산을 소재로 창작되었는데, 먼저 1수와 3수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
|---------|--------------------------------|
| 漢水波瀾天地來 | 한강의 넘실대는 파도 천지 사이에 흐르고         |
| 終南秀色古今開 | 종남산의 수려한 빛 예나 지금예나 환하구나        |
| 煌煌聖德無終始 | 빛나는 성덕은 끝없이 이어지니               |
| 山作瑤臺江作杯 | 산은 요대요, 강은 술잔일세 <sup>16)</sup> |

16) 최승태, 「漢陽行」, 『雪蕉遺稿』.

|         |                           |
|---------|---------------------------|
| 前有終南後白麓 | 앞에는 종남산 뒤에는 백악 있으며        |
| 駱峯鞍峴擁西東 | 동서로는 낙산과 안현이 둘러싸고 있네.     |
| 樓臺處處開紋繡 | 곳곳마다 누대 화려하게 지어져          |
| 日暮笙歌楊柳風 | 저물녘에 버들 바람 사이로 풍악 소리 들리네. |

한강과 남산을 소재로 1수를 창작했다는 것은, 최승태가 한강과 남산을 서울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인식했음을 의미한다. 그는 남산과 한강을 각각 요대와 술잔으로 표현함으로써 이들 공간을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곳으로 나타냈다. 3수에서는 도성을 둘러싼 산을 통해 당시 서울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1~2구에서는 동서남북이 산으로 둘러싸인 도성의 모습을 묘사하고, 3~4구에서는 이러한 산에서 서울의 사람들이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이처럼 <한양행>에서는 도성 주변의 산천을 통해 태평성대를 누리는 공간으로 서울을 표현하였는데, 이는 당대(唐代)의 악부시를 모의하되 한양 도성의 지형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당대 서울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1, 3수에서 주목할 점은 풍류를 즐기는 공간으로 도성의 사산(四山)과 한강을 묘사하였다는 것이다. 조선 초에 정도전이 팔경시(<進新都八景詩>) 창작을 통해 서울을 이상적인 국도로 표현하였는데, 그 첫수인 ‘기전산하(畿甸山河)’에서 한강과 북한산에 둘러싸인 서울을 천연의 요새로 나타냈다. 도성의 경우 북악(백악)이 鎮山이었으며, 도성을 둘러싼 4개의 산(북악산, 남산, 낙산, 인왕산)에 성곽을 쌓았다. 즉, 도성 주변의 산과 한강은 도성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러한 점 때문에 서울을 상징하는 곳이자 수호하는 곳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이미지가 전란 이후에 변화되어 <한양행>에서는 서울 주변의 산천을 도성을 수호하는 존재가 아닌 풍류를 즐기는 공간으로 표현한 것이다.

|         |                             |
|---------|-----------------------------|
| 宮闕連雲日月低 | 궁궐에 구름 에워싸고 해와 달 낮게 걸려 있으니  |
| 千官拜舞驚班齊 | 천 명의 관리들 절하고 춤추며 조반들 가지런하네. |
| 須臾朝罷公卿出 | 잠시 후 조회 파해서 공경들 나오니         |
| 馳道楊花散馬蹄 | 길에는 양화 날리고 말발굽 흩어지네.        |

위는 2수를 인용한 것으로, 이는 궁궐에서 관리들이 조회하는 모습을 소재로 창작된 것이다. 1구에서는 구름이 에워싸고 해와 달이 낮게 걸려 있다는 표현을 통해 당시의 궁궐을 웅장하면서도 높이 솟아 있는 모습으로 묘사하였다. 2구에서는 백관이 임금에게 조회하는 모습을, 3~4구에서는 조회가 끝난 뒤 백관들이 궁궐에서 나와 흩어지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이 시에서는 임금이 거주하는 궁궐의 모습을 웅장하게, 백관들이 조회하는 모습을 성대하게 표현함으로써 창작 당시의 서울을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공간으로 나타냈다. 2수에서는 서울에 임금이 거주하는 궁궐이 있다는 점, 그리고 정치적 중심지라는 점을 통해 국도로서 서울의 모습을 나타냈다.<sup>17)</sup> 1~3수의 내용을 종합하면, <한양행>에서는 도성의 안과 밖의 경관을 통해 서울을 태평성대가 실현되는 공간으로 표현하였다.

17세기에 창작된 한도팔경시류 작품의 경우 정도전이 만든 이미지를 계승하는 방향으로 창작되었기 때문에, ‘기전산하(畿甸山河)’의 표제를 바탕으로 서울이 지형적으로 도읍지로 적합한 곳임을, ‘도성궁원(都城宮苑)’에서는 궁궐의 웅장한 모습을 통해 국도로서의 위상을 나타냈다. <한양행>에서 서울 주변의 산천과 궁궐을 소재로 서울의 이미지를 나타냈다는 점은 이와 비슷하지만, 최승태가 서울 주변의 산천을 도성을 수호하는 존재가 아닌 변화한 도성의 모습을 표현하는 소재로 활용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

17) 정도전의 <進新都八景詩>의 ‘都城宮苑’과 ‘列署星拱’에서는 도성의 궁궐과 육조거리 및 관리들의 모습을 통해 서울을 수도로 적합한 곳으로 표현하였다. <漢陽行>의 2수 내용 또한 이와 유사하다.

다. 즉, 서울을 상징하는 공간을 활용하되 그의 시각으로 공간의 의미를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점은 한편으로는 서울 주변의 산천에 대한 당시의 인식이 변화되었다는 것으로도 해석되는데, 임진왜란 이후부터 도성이 몇 차례 함락된 역사가 있으므로 서울 주변의 산천을 조선 초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으로도 파악된다.

## 2)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으로 표현

<한양행>의 4~7수에는 왕족, 역관, 고관, 하급 무관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최승태는 이처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통해 당시 서울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먼저 4수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
|---------|-----------------------------|
| 夾道通衢西復東 | 좁은 길, 큰길은 동으로 서로 나 있으며      |
| 香車寶馬度春風 | 좋은 수레와 말이 봄바람 가르며 달리네.      |
| 駱山王子歸朱邸 | 낙산의 왕자(인평대군)는 화려한 저택으로 돌아오고 |
| 壯義公主出金宮 | 장의동 공주(숙휘공주)는 화려한 궁궐에서 나오네. |

4수의 1~2구에서는 도성에 도로가 잘 조성되어 있으며, 귀인들의 수레와 말이 도성을 누비는 모습을 통해, 당시 서울을 변화한 성시(城市)로 나타냈다. 3~4구에서는 당시 서울에서 화려한 저택을 소유한 사람으로 인평대군과 숙휘공주를 들었다. 인평대군의 저택은 낙산에 있었는데, 그 집은 조선 후기 지리지인 『동국여지비고』의 제택 항목에 실려 있으며, 19세기에 창작된 장준흠의 <한경잡영(漢京雜詠)>에도 서울을 대표하는 장소로 나와 있다. 이를 통해 17세기에 지어진 인평대군의 집이 화려한 저택이라는 점에서 조선 후기까지 서울의 명소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장의동 공주는 숙휘공주로, 숙휘공주가 사망한 뒤에 숙종이 그 집을 사서 연잉군에게 주었다. 즉, 숙휘공주의 집은 숙종 이후에 영조가 연잉군 시절에 살던 창의궁이 되었

다. 이처럼 4수에서는 당시 서울을 귀인들의 좋은 수레와 말이 누비고 다니고, 공주와 왕자들의 화려한 저택이 있는 곳으로 나타내었다.

|         |                             |
|---------|-----------------------------|
| 燕市馱來百樣錦 | 연경에서 온 짐바리에는 백 가지 비단 들어 있는데 |
| 越羅杭綺品皆殊 | 월나라 비단 항주 비단 품종 다 다르네.      |
| 尙方有令徵求急 | 상방에서 명을 내려 급하게 물자 요구하니      |
| 皆向張徐宅裡沽 | 모두 장씨, 서씨 향해 집 안 물건 팔라고 하네. |

5수는 역관의 모습을 소재로 창작되었다. 당시 중국을 오가는 사행단은 사행에 필요한 여비를 스스로 마련하는 대신 사무역이 허용되었으며, 역관들은 이를 통해 부를 축적하였다. 위의 시 1~2구에서는 사행을 다녀온 역관이 품종이 좋은 비단을 들여온 모습을 묘사하였다. 이는 중국에서 사치품을 들여와서 판매함으로써 부를 축적하는 역관의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당시에 역관이 이러한 사치품을 들여온다는 것은 이를 소비할 만한 계층이 존재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3~4구에서는 인동 장씨와 같이 당시에 역관으로 유명한 집안을 언급하였다. 상방에서 요구하는 물건을 이들 집안에서 델 수 있다는 내용을 통해 당시 역관들이 상당한 부를 축적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즉, 5수에서는 당시 사행으로 부를 축적한 역관들이 서울의 새로운 주축이 되는 신흥 계층이 되었음을 나타냈다.

|         |                             |
|---------|-----------------------------|
| 紅粧帶月度松橋 | 곱게 단장한 여자 달빛 받으며 송교 건너는데    |
| 邏騎休禁肅府招 | 체부에서 부른 터라 순라꾼도 금하지 않네.     |
| 寶瑟清歌腸欲斷 | 거문고 타며 부르는 노랫소리에 장이 끊어질 듯하니 |
| 山亭夜夜燭花燒 | 산의 정자에는 밤마다 촛불 타오른다네.       |

위의 6수는 당시 고관들의 풍습을 소재로 창작된 작품이다. 1~2구에서는 곱게 단장한 기생이 서울의 송교를 건너는 모습과 체찰부에서 기생을

불렀기 때문에 순라꾼이 기생의 통행을 금지하지 않고 보내주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체부가 지금의 서울 체부동에 있었으므로, 1구의 송교는 현재 서울경찰청의 위치에 있었던 송침교로 추정된다. 3~4구에서는 산의 정자에서 밤마다 기생을 불러 연회를 즐기는 모습을 통해 숙직하는 관원들뿐만 아니라 당시 서울 도성 곳곳에서 밤마다 유흥을 즐겼던, 당시 서울의 풍속을 표현하였다.

위의 작품에서 묘사한 것처럼 고관들이 숙직할 때 기생을 불러서 노는 것은 17세기 이전에도 있었던 일로, 이기(1522~1600)의 『송와잡설(松窩雜說)』에는 육조와 사간원에서 숙직하는 관원들이 기생을 불러 놀았던 풍습이 기록되어 있다.<sup>18)</sup> 또한 박동량(1569~1635)은 『기재잡기(寄齋雜記)』에서 종종 때 정유길과 관련된 일화를 기록하면서 당시 예조에서 음악을 검열한다는 핑계로 기생을 불러 술을 마시고 놀았던 풍습을 설명한 바 있다.<sup>19)</sup> 이기는 이에 대해 태평시대의 일이며 기록하던 당시에는 없어진 풍속이라고 하였으며, 박동량이 기록한 예조의 풍습 또한 전란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 이를 바탕으로 6수의 내용을 살펴보면, 관리들이 숙직 중에 유흥을 즐기는 모습을 통해 당시 서울의 부화한 풍조를 나타냈으며, 이는 또한 전란을 극복하고 태평한 시대를 누리는 공간으로 서울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錦衣年少氣凌虹

비단옷 입은 젊은이들 무지개만큼 화려하고

18) 이기, 『松窩雜說』, “祖宗朝, 六曹直宿郎官等, 月夜各雜娼物, 會于光化門外之上, 詩酒歌呼終夜談飲, 是乃太平之事, 非徒六部然也. 薇垣之官亦以曲會爲事, 入直之夜必携妓而宿, 天將曉, 掌務吏立於窓外而請謁者, 欲令早出尤物也. 其後世道漸淆, 法禁漸密, 六部上直之風頓變, 薇垣夜飲亦廢, 而獨於直宿之夜, 掌務吏請謁古事猶存.”

19) 박동량, 『寄齋雜記』 권2, “禮曹在六曹, 爲清閑無事, 而勝事最多. 坐起之日, 托以聞樂, 坐於南樓之上, 極擇妙妓勝樂, 觴之終日, 歌舞轟聒, 時呼曹司佐郎, 罰杯無算. 而判書聞之, 亦以爲例事, 而不之責焉.”

|         |                        |
|---------|------------------------|
| 躍馬從西又向東 | 말 타고 서로 동으로 달리네.       |
| 自言丞相殷勤接 | 스스로 말하길, 승상이 은근하게 대해주고 |
| 大將軍今欲紀功 | 대장군이 지금 공을 기록한다고 하네.   |

위는 7수로, 당시 무관, 즉 무예별감들의 모습을 소재로 창작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에 서울의 무관들은 도시의 유흥을 주도하던 계층, 즉 왈짜로 지칭되는 무리를 형성하였다. 7수에 등장하는 젊은이들을 화려한 복색을 하고, 말을 타고 도성을 질주하며, 윗사람들과의 관계를 자랑하며 위세를 부리는 모습으로 나타냈는데, 이러한 면이 조선 후기 왈짜 또는 검계 집단의 특성과 부합한다.<sup>20)</sup>

서울 도성의 무관들은 전란 이후에 도성 및 왕을 수호한다는 점에서 그 지위가 상승하였으며, 18세기 이후에 도시화·상업화된 서울 공간을 기반으로 당대 서울의 유흥 문화를 주도하는 왈짜 계층이 되었다.<sup>21)</sup> 7수에서 화려하게 차려입고 상층 집단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계층으로 하급 무관의

20) 왈짜와 검계는 17세기 후반 이후부터 서울에서 활동한 무뢰배 집단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극익의 『燃藜室記述』(권36)에는 『朝野會通』의 내용을 인용하여, 숙종 10년(1684)년에 일본이 조선을 거쳐 명나라를 침략한다는 소문으로 도성이 소란하였는데, 이 틈을 타서 무뢰배들이 검계를 조직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전쟁이 난다는 소문을 듣고 피난하는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고, 사람들을 살해하고, 부녀들을 겁탈하는 등의 악행을 저질렀다. 이들에 대한 기록은 『숙종실록』 숙종 10년(1684) 2월 12일 기사에도 나온다. 이들은 왈짜(曰者)로 불리기로 했으며, 중인 계층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나 양반도 있었으며, 18세기 후반까지 서울에서 활동했다. 검계와 왈짜에 관련된 내용은 강명관, 『조선후기 여항문학 연구』, 창작과 비평사, 1997; 강수진, 「강준흠의 『漢京雜詠』에 나타난 19세기 서울 공간에 대하여」, 『한문학보』 41, 우리한문학회, 2019; 고석규, 「18·19세기 서울의 왈짜와 상업문화 - 시민사회의 뿌리와 관련하여-」, 『서울학연구』 13,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1999; 송정란, 「조선후기 무예별감의 활동과 인식」, 『용봉인문논총』 60,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2. 참조. 송정란은 왈짜로 회자되는 무예별감은 조선 후기 서울의 도시적 특징을 보여주는 존재라고 하였다.

21) 송정란(2022), 위의 논문, 134~139쪽 참조.

모습을 표현하였는데, 이러한 점에서 최승태가 표현한 당대의 하급 무관은 왈짜 집단의 전신으로 파악된다. 즉, 17세기 후반에 서울이 도시화·상업화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들만의 문화나 세력을 키우는 무관들의 모습을 통해, 18세기 후반의 서울을 대표하는 집단 중 하나인 왈짜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최승태는 도시로의 발전 단계에 있는 과도기의 서울 모습을 포착하여, 이를 시로 표현하였다.

#### 4. 결론

본고에서는 17세기 후반의 서울을 대상으로 창작된 최승태의 <한양행>을 분석하여 전란과 대기근 이후 서울의 모습을 파악하였다. <한양행>은 1670년 이후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시는 여향인의 시각으로 본 전란과 대기근 이후의 서울의 면모를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장에서는 17세기 서울의 상황을 살펴보았는데, 당시 서울은 전란으로 무너진 도성 공간과 추락한 국도의 위상을 회복하는 상황에 있었다. <한양행>이 창작된 17세기 후반은 대기근으로 국가적 위기를 맞았던 시기로, 당시 조선은 대기근에 대처할 만한 경제적인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정치적으로도 혼란하였기 때문에 대기근의 위기에 적합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전체 인구는 다수 감소하였으나, 기근으로 발생한 유민이 구휼을 받기 위해 서울로 유입되고 이들이 계속해서 서울에 거주하게 되면서 서울의 인구는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대기근의 영향으로 서울로 인구가 몰리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서울은 상업화·도시화가 진행되었다. 이를 볼 때 17세기는 전란과 기근이라는 위기가 있었으나, 이를 계기로 도성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도시화로 나아가는 기반이 되는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최승태의 <한양행>은 이러한 기반에서 창작된 것이다. 이 작품은 총 7수로, 내용상 1~3수, 4~7수로 나눌 수 있다. 1~3수에서는 도성 주변의 산천과 궁궐을 통해 당시 서울의 모습을 나타냈다. 1수와 3수의 경우, 도성 주변의 산천을 도성을 수호하는 존재가 아닌 태평성대를 누리는 공간으로 표현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승태는 당시 서울을 주도하던 계층을 중심으로 4~7수의 내용을 구성하였는데, 이들은 각각 왕족, 역관, 고관, 하급 무관이다. 17세기 중반 이후 서울에는 왕족들의 화려한 저택이 들어섰는데, 4수에서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당시 서울의 부화한 풍조를 나타냈다. 5수에서는 역관이 사행을 통해 부를 축적하며 서울의 신흥 계층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6수에서는 숙직하면서 유흥을 즐기는 고관들의 모습을 나타냈다. 7수에서는 위세를 과시하는 하급 무관들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이처럼 최승태는 <한양행>에서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을 통해 당시 서울의 모습을 다채롭게 표현하였는데, 이는 그가 여향인의 신분으로 사적 차원에서 작품을 창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17세기 전반부터 후반까지 율곡으로 창작된 한도팔경시(漢都八景詩)류의 작품은 정도전의 팔경시(<進新都八景詩>)의 표제를 바탕으로 도성 안팎의 공간을 통해 서울을 이상적인 국도의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이에 비해 최승태는 <한양행>을 통해 서울을 태평성대를 누리는 공간과 변화한 성시, 그리고 다양한 인물군이 활동하는 공간으로 나타냈으며, 이를 통해 전란과 대기근 이후에 도시화·상업화가 시작되는 서울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조선 초기에는 주로 팔경시의 형식으로 서울 전체 경관을 표현하였다. 이는 서울이라는 공간을 8개 또는 그 이상으로 분할하고, 각 공간의 이미지를 통해 서울을 다채롭게 표현하기에 적합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하는 작품으로는 정도전의 팔경시(<進新都八景詩>)를 비롯하여 서거정의 <한도십영(漢都十詠)>, 정이오의 <남산팔영(南山八詠)>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비해 18세기 이후에 서울 전체 경관을 대상으로 창작된 작품의 경우,

팔경시의 형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로 서울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정내교의 <한양팔영(漢陽八詠)>에는 여항인이 바라본 18세기 전반 서울의 모습이 담겨 있다. 정내교는 작품에 ‘팔영(八詠)’이라는 제목을 붙였지만, 표제 없이 그가 바라본 당대 서울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일정한 기준 없이 나열하는 방식으로 전체 내용을 구성하였다. 강이천의 <한경사(漢京詞)>는 18세기 후반 서울의 모습을 106수로 표현한 작품으로, 각 수는 7언절구로 되어 있으며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일정한 기준 없이 나열하는 방식으로 전체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서울 전체 경관을 대상으로 창작된 시는 조선 전기에는 주로 팔경시 형식으로 창작되었으나, 18세기 이후에는 정내교의 <한양팔영>과 강이천의 <한경사> 등과 같이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서울의 모습을 일정한 기준 없이 나열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시가 창작되었다. 이러한 면에서 17세기 후반에 창작된 최승태의 <한양행>은 팔경시의 형태에서 벗어나서 작가 자신이 생각하는 서울의 모습을 다채롭게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전란과 대기근 이후 서울이 점차 도시화, 상업화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서울을 표현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당대 서울의 다채로운 모습을 나타낸 작품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참고문헌

朴東亮, 『寄齋雜記』.

李壘, 『松窩雜說』.

鄭來僑, 『浣巖集』.

鄭道傳, 『三峯集』.

崔承太, 『雪蕉遺稿』.

강명관, 『조선후기 여항문학 연구』, 창작과 비평사, 1997, 1~446쪽.

강석중, 「설초(雪蕉) 최승태(崔承太)의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11, 한국한시학회, 2007, 201~214쪽.

강수진, 「강준함의 「漢京雜詠」에 나타난 19세기 서울 공간에 대하여」, 『한문학보』 41, 우리한문학회, 2019, 299~328쪽.

\_\_\_\_\_, 「18세기 前半 서울을 대상으로 창작된 八景詩 연구」, 『東方漢文學』 98, 동방한문학회, 2024, 85~118쪽.

고동환, 『조선후기 서울 상업발달사 연구』, 지식산업사, 1998, 1~499쪽.

고석규, 「18·19세기 서울의 활자와 상업문화 - 시민사회의 뿌리와 관련하여-」, 『서울학연구』 13,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1999, 45~86쪽.

김덕진, 『대기근, 조선을 뒤덮다 - 우리가 몰랐던 17세기의 또 다른 역사』, 푸른역사, 2009, 1~351쪽.

김미성, 「조선 현종~숙종 연간 기후 재난의 여파와 유민(流民) 대책의 변화」, 『역사와 현실』 118, 한국역사연구회, 2020, 99~135쪽.

송정란, 「조선후기 무예별감의 활동과 인식」, 『용봉인문논총』 60,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2, 117~144쪽.

이국진, 「설초(雪蕉) 최승태(崔承太)의 공주체류기 한시(漢詩) 고찰」, 『한문고전연구』 39권, 한국한문고전학회, 2019, 27~55쪽.

정민, 「16·7세기 학당풍(學唐風)의 성격과 그 풍정(風情)」, 『韓國漢文學研究』 19, 한국한문학회, 1996, 189~222쪽.

정해은, 「조선 초기 도성의 위상과 도성방어론」, 『서울학연구』 제49호,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2012, 101~130쪽.

기타 자료 및 WEB DB

배한철, 「야근하면서 여자 불리 술판 ... “힘든 일 하니깐” 봐줬다는 조선시대

[서울지리지]], 『매일경제』, 2024.02.27., <https://www.mk.co.kr/news/culture/10951210>, 접속일자: 2024.07.20.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ABSTRACT

Reconstructed Seoul of the Late 17th Century: Insights from  
Yeohang-in(閭巷人)'s Perspective  
-Focusing on Choi Seung-tae's *Hanyang-hang*(漢陽行)

Kang, Soo-jin

In this paper, we analyze Choi Seung-tae's *Hanyang-hang* (漢陽行) to understand the aspects of Seoul in the late 17th century from the perspective of Yeohang intellectuals. Through this analysis, we reveal how Seoul was laying the foundation for urbanization following the war and the great famine. There are two main reasons for focusing on Choi Seung-tae's *Hanyang-hang*. First, there has been insufficient research on works created in Seoul during the 17th century. Second, to understand the evolution of Seoul's image and spatial perception from the early to the late Joseon Dynasty, it is essential to analyze works from the 17th century and examine their characteristics.

The 17th century was a period marked by war and severe famine. For Seoul, it was a time of recovering the city walls destroyed by conflict and restoring the national highway's status, as well as overcoming the national crisis brought about by widespread famine. Choi Seung-tae's *Hanyang-hang* (漢陽行) was created against this backdrop. This work consists of seven poems, which can be divided into two thematic groups: Poems 1 to 3 and Poems 4 to 7.

In Poems 1 to 3, Choi Seung-tae depicts Seoul through its surrounding mountains, rivers, and palaces. The portrayal of the capital's natural features emphasizes a space of peace and prosperity rather than merely serving as a protective barrier.

In Poems 4 to 7, Choi focuses on the leading classes of Seoul at the time: the royal family, interpreters, senior officials, and military officers. He highlights the opulence of the royal family's mansions, reflects on

how interpreters accumulated wealth through diplomatic missions and emerged as a new social class, and depicts military officers who enjoyed leisure and flaunted their power. Through these poems, Choi Seung-tae captures the dynamic changes in Seoul's social hierarchy during this period.

In this way, Choi Seung-tae conveyed the multi-layered aspects of Seoul through *Hanyang-hang* (漢陽行), a work he produced at a personal level as a Yeohang-in (閭巷人). Rather than portraying Seoul as an ideal capital from his own perspective, Choi Seung-tae crafted *Hanyang-hang* to reflect the social realities of the time. Through this approach, he depicted Seoul as a city on the brink of urban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emerging after the war and the great famine.

**Key Words** 17th century, Seoul, Choi Seung-tae, Hanyang-hang(漢陽行), Yeohang-in(閭巷人)

|                                                                |
|----------------------------------------------------------------|
| 논문투고일: 2024.07.21.<br>심사완료일: 2024.08.06.<br>게재확정일: 2024.08.08. |
|----------------------------------------------------------------|

